

마감재, 화재사고로 위험성 “논란”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 ... 난연기준 미달 외벽 마감재 적법여부 수사

해운대에 발생한 고층아파트의 대형 화재사고로 외벽 마감재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고층아파트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초 목격자인 환경미화원이 미화원 탈의실에서 썩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과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탐문수사를 통해 탈의실에 각종 전기배선이 꽂혀 있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불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외벽의 마감재의 적법여부와 소방점검의 적정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해운대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형사 8개팀 5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투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04>